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11. 간다라란 무슨 뜻인가?

나는 1999년 7월부터 8월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열린 간다라미술 특별전을 참관하는 지복을 누렸다. 훌륭한 작품들은 주로 파키스탄의 여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간다라 불교예술을 대표하는 문화재였다. 간다라불상이 그리스예술과 불교정신의 경이적인 만남을 상징하는 고결한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간다라불상은 로메오와 줄리아와 같이 자신의 고난을 감내한 희생적 영웅의 상징을 모티브로 삼은 그리스예술과 파괴적인 삶을 극복하고 열반을 증득한 불교의 심원한 정신이 조우하여 보여주는 고결한 아름다움과 초월적인 지성을 해탈의 법열(法悅)이 담긴 미소로 표현한다.

그렇다면 간다라(Candhara)란 무슨 뜻인가. 여기서는 간략하게 세 가지 문제만 이야기하기로 한다. 첫째, 간다라는 지명이다. 간다라는 아프가니스탄의 잘랄라바드 일대와 파키스탄의 페샤와르 분지를 포괄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더 정확히 현황

고미술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은 프랑스의 인도학자, 알프레드 푸세(1865-1953). 그는 1922-1925년간 조사한 후 저서 <간다라의 그리스계 불교미술>에서 그리스문화와 불교문화의 관련시켜 간다라 불교미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이다.

둘째, 간다라라는 지명은 그 이름처럼 향료(香料)의 나라였으며, 이 사실은 불교의 전파와 고대의 향료 무역, 또는 불교의 향료의 관계에 관한 소중한 정보를 제시한다. 불상의 고향 '간다라'라는 지명을 한역하면 '향국(香國)', 바로 '향료의 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화엄경의 등>의 여러 불교경학의 자료에서는 간다라를 향행국(香行國), 향풍국(香風國), 향결국(香結國)이라고 적고 있다.

셋째, 간다라국은 이처럼 향과 관계가 있는 지명을 갖고 있지만 정작 향료의 생산지는 아니었다. 간다라는 페바나와 시리아와 같은 지중해 연안의 여러 지역에서 생산되는 향료가 인도와 중국으로 전해지는 향료무역의 중개 무역지였으며 <책부원구(冊府元龜)>권971, <당회요(唐會要)>권99, <신당서(新唐書)>권221 등에 의하면 당 개원 12년(724) 토하라의 사신이 당조에 바친 공물 품목 가운데 '건타바라(乾陀波羅, 香果) 등의 이약(異藥) 2백 여 품'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을 정도로 주요 무역품이 향료였다. 동서 문명 교섭사의 석학, 에드워드 웨이퍼 또한 필생의 역작, <사마르 칸드의 황금복숭아>에서 '간다라는 불교의 교리, 불상의 주요원산지이기도 하지만 중앙아시아, 중국, 저 먼 극동의 신라, 일본까지 도달한 향료의 주요 공급국이었던'다고 쓰고 있는 것이다. 불교경전에는 향료의 백과사전이며 동시에 고대 동서 문명 교섭의 문화코드가 살아있는 지혜의 광장이다. <금광명회승왕경>의 32항법과 <법화경>, <화엄경>의 거의 모든 지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향의 명칭과 불교적 의미가 갖는 불교문화사, 동양중세의 문화적 의미, 불전 연구상 향료의 명칭과 원산지가 갖는 문제, 불교의례 성립상의 의미, 실크로드와는 또 다른 '간다라'에서 경주 불국사에 이르는 향료의 길'이라는 틀이 큰 이야기는 천천히 하기로 한다.

'향료의 나라' 의미

불교 예술의 고향

과 5세기의 법현, 8세기의 신라 혜초 스님이 기록하고 있는 간다라는 주로 페샤와르분지에 해당하는 지명이다. 간다라는 남북 약 80km, 동서 약 40km의 분지이지만 문화사적으로는 간다라불교예술이 발견되는 서쪽의 카불분지와 잘랄라바드, 북쪽의 스와트, 탁실라 등의 모든 지역을 포괄하는 지명으로도 사용한다. 실크 간다라는 B.C 327년의 초여름, 젊은 알렉산더대왕이 그의 병사들과 함께 힌두쿠시산맥을 넘어 아래 그리스예술과 불교의 만남이 이루어진 지역이며 동서를 가로 잇는 무역로의 요충지였으며 불발을 구하는 서역구법승들의 행로에서 빠질 수 없는 지역이었다. 따라서 이미 7세기의 현장 삼장은 <대당서역기>2에서 '학문과 예술의 고향'으로서 옛부터 뛰어난 불교의 논사(論師)들의 대부분이 이곳 출신이라는 건타라국(健陀羅國)에 관한 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신라의 혜초 스님 또한 <왕오천축국전>에서 건타라국에 관한 기록을 남겼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간다라불

■ 경학회 회주

심오한 교리 한 폭 그림에 압축



침묵자의 길

불화의 의미와 종류

사물에 가려 여러 불화들을 만나게 된다. 일주문에서부터 여러 전각의 내·외부를 장식하는 불화들. 그러나 불자들은 대부분 이를 보고 으레 그곳에 있는 그림 정도만 생각할 뿐 눈여겨보지 않는다. 간혹 몇몇 눈 밝은 불자들이 유심히 살피고 그 의미를 새겨 볼 뿐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반 탐방객들이 불화에 대해 질문을 해 올 경우 묵묵부답일 수밖에 없다. 불자라면 최소한 불화의 의미나 분류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불화는 우리나라의 가장 전통적인 회화라 할 수 있다. 이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벽화, 탕화, 괘불 그리고 변상도 나눌 수 있다. 불교 전래 초기에는 벽화가 중심이 되었다. 하지만 벽화는 이동이 불가능하여 시대가 흐르면서 이동이 가능한 탕화로 보편화되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불화는 종이바탕이나 베타에 그려 벽에 걸리게 되는 탕화가 가장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탕

화는 실외에서 거행되는 의식에 사용되는 대형 그림이다. 이 괘불은 우리나라와 몇몇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것이다. 변상도란 불경의 내용을 변화시켜 나타낸 그림이란 뜻으로 사경의 그림과 경판의 그림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탕화는 주제와 내용에 따라서 상단(上壇)·중단(中壇)·하단(下壇) 탕화로 구분된다.

상단 탕화는 전각의 상단 즉 불전의 중앙에 모셔진 불보살상의 뒷면에 거는 탕화로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대웅전 후불탱화로 영산회상도를 바탕으로 아미타불과 관음보살, 대세지보살, 약사불, 일광보살, 월광보살이 좌우에 협시한 구도의 석가모니불탱화, 극락전 탕화로 서방정토에서 아미타여래가 설법하는 모습을 그리거나 대웅전 후불탱화와 같은 영산설법도의 내용을 그린 아미타불탱화, 대강명전 또는 대적광전 후불탱화로 <화엄경>의 설법장면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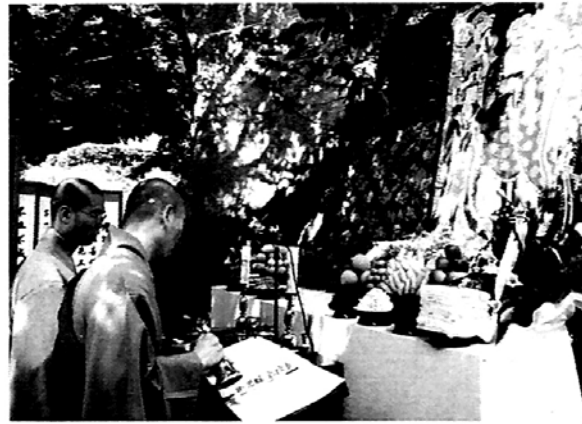
그린 비로자나불탱화, 약사전 후불탱화로 약사정토의 특성을 그린 약사불탱화 등이 있다. 중단 탕화는 불단의 좌우측에 있는 영가단에 거는 탕화로서 주로 신중이나 호법신 등을 그린 탕화이다. 하단 탕화는 명부전의 지장보살, 시왕

이동 가능 탕화 종류

야외서 큰재 올릴때 괘불

상 위에 거는 탕화이다. 대체로 불전의 좌우측 벽면에 설치되는 하단의 전면에 영가의 위패나 사진을 봉안하고 그 뒷면에 감로탱화를 건다.

법당 밖에서 불교의식을 거행할 때 사용되는 괘불은 보통 본존불 뒤에 걸려 있는 후불탱화를 사용한 것이다. 하지만 큰 재를 올릴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법회의 성격에 맞는 내용이 담긴 것을 내걸게 된다. 탕



◀ 불화는 우리 전통 회화로 벽화·탱화·괘불·변상도 등으로 나뉜다. 사진은 삼국암의 괘불점안식.

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영산재 때에는 영산회상도를, 예수재나 수륙재 때에는 지장회상도나 명부시왕도를 사용한다.

변상도는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전생을 묘사한 본생도와 일대기를 나타낸 불전도 그리고 서방정토의 장엄도가 기본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변상도는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변상도는 여러 가지 양식의 불교미술에 고루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주로 회화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즉 절 안팎의 벽화, 탕화, 경판, 단청 등에 모두 변상도가 그려졌다. 이들 변상도의 특징은 복잡한 경전의 내용이나 심오한 교리의 의미를 한 폭의 그림에 압축함으로써 보는 이들에게 그 뜻을 이해하고 신심을 일으키게 하는 데 있다. 이것이 변상도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다.

김중근 기자



'지식인이 이 도(道)를 배움에 총명하지 않음을 근심하지 말고 너무 총명함을 근심해야 하며, 지견(知見) 없음을 근심하지 말고 지견이 너무 많은 것을 근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8식(八識) 속에 사 발을 내딛을 뿐, 발 아래의 쾌활하고 자재(自在)한 소식에는 어둡습니다. 사된 견해 가운데에서도 좀 나은 것은 보고·듣고·느끼고·아는 것을 자기라고 이해하고 다만 볼 뿐이라거나 다만 들 뿐이라거나 심지법론(心地法門)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못한 것은 의식을 이리 저리 헤아려서 선문(禪門)으로 여기고 입술을 놀려서 현묘(玄妙)함을 논하며, 더 심하게는 발광하기에 까지 이르러 말을 아끼지 않고 인도말로 중국말로 이것저것을 따서 비추며 말없이 텅 비고 고요하게 하여 귀신속에서 머물러 궁

'서장' 통한 선 공부 38

이량중(李郎中)에 대한 답서

도, 찾지 않으면 있고 찾으면 없는 것

극의 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도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잘못된 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3가지를 말할 수 있다. 하나는 감각과 지각(知覺)을 관찰하고 파악하여 도를 알고 있는 것이고, 하나는 이치를 연구하고 이해하여 도를 알고 있는 것이고, 하나는 감각과 알음알이를 딱 끊어버린 텅 비고 고요한 곳에서 비추어봄으로써 도를 알고 있는 것이다.

감각과 지각을 관찰하고 파악하여 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본체는 모양 없는 하나이지만 그 작용은 다양하여 눈·귀 등 6개의 지각기관을 통하여 보고·듣고·냄새 맡고·맛보고·촉감을 느끼고·생각한다는 말을 믿는다. 또 마음의 작용은 눈에 있으면 밝아지고 귀에 있으면 말한 다 하고, 손에 있으면 잡는다 하

고, 발에 있으면 걷는다 한다는 말을 믿는다. 그리하여 보고 들을 때에는 다만 보고 들기만 하고, 느낄 때에는 다만 느끼기만 하고, 말할 때에는 다만 말하기만 하고, 행동할 때에는 다만 행동하기만 함으로써 마음의 작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여긴다.

이것은 견해로서는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의식을 앞세우고 의식의 흐름에 집착하여 도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것에 막히고 느끼기에 막히고 생각과 몸의 움직임에 막히게 된다. 요컨대 의식에 막히게 되는 것이다. 의식에 막혀 있으므로,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생각도 없고 행동도 없는 때에는 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고 물어보면, 그만 당황해서 이리저리 헤아리며

은갖 견해를 따라다니는 것이다.

이치를 연구하고 이해하여 도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은 경전과 어록을 섭렵하고 세밀하게 그 뜻과 이치를 연구함으로써 그 내용을 이해하는 몇 가지 원리를 터득한다. 그리하여 그 원리를 가지고 어떤 말이나 행동에나 모두 적용하여 이것도 같은 원리로군 하고 만족해 한다. 이것은 마치 제멋대로 만든 저울을 가지고 온갖 물건 무게를 재면서 이것에 맞고 느끼기에 맞고 생각과 몸의 움직임에 막히게 된다. 요컨대 의식에 막히게 되는 것이다. 의식에 막혀 있으므로,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생각도 없고 행동도 없는 때에는 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고 물어보면, 그만 당황해서 이리저리 헤아리며

린 텅 비고 고요한 곳에서 비추어 봄으로써 도를 알리고 하는 것은, 소위 도를 닦고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빠져 들어가는 사된 길이다. 이들은 각각 의식과 알음알이는 도가 아니라 마을을 어지럽히는 더러운 먼지요, 티끌이라고 여겨서 도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이것들을 깨끗이 쓸어버린 텅 비고 고요한 속에서 마음을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 역시 분별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어지럽고 고요하고 더럽고 깨끗함을 나누어서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기 때문이다.

도는 감각이나 느낌이나 생각과 몸의 움직임이나 이치의 합당함이나 모든 것을 깨끗이 비워 버린 공허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도는 찾지 않으면 모든 곳에 있지만 찾으면 없고 하던 어디에도 있지 않다. http://www.mindtree.net/



김태완 부사대 강사·철학

원리를 터득한다. 그리하여 그 원리를 가지고 어떤 말이나 행동에나 모두 적용하여 이것도 같은 원리로군 하고 만족해 한다. 이것은 마치 제멋대로 만든 저울을 가지고 온갖 물건 무게를 재면서 이것에 맞고 느끼기에 맞고 생각과 몸의 움직임에 막히게 된다. 요컨대 의식에 막히게 되는 것이다. 의식에 막혀 있으므로,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생각도 없고 행동도 없는 때에는 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고 물어보면, 그만 당황해서 이리저리 헤아리며

선무도 겨울 수련회
禪武道 大金丹門에서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위한 겨울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기간: 2001년 12월 1일부터 3개월간(1주, 2주, 1개월단위)
대상: 초등학생 이상 개인 및 단체 (불교학생회, 신영단체, 각종 사회 단체 위탁 연수)
수련내용: 참선, 선오기, 선무술, 전통문화(무용, 다도) 불교 교리 강의
동참금: 학생(1일 - 2만 5천원, 1개월 - 60만원) 일반(1일 - 3만원, 1개월 - 65만원)
접수문의: TEL (054) 745-0246, 744-1689 FAX (054) 746-0172
단체 연수가 많으므로 미리 예약해야 합니다. 예약없이 입산 불가)
수련비입금 계좌: 농협 721107-52-037300 예금주) 설기준
준비물: 개인 세면도구, 운동복, 운동화, 필기구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41기 佛敎儀式(범음·범매)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 (아간 및 통신생)
·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식, 쇠술,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선축원, 불공식식 등
·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정관음식식, 다비식 등
· 작법반 (6개월) 요점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함
·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함
모집인원: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2001년 12월 15일까지
개강일시: 2001년 12월 17일 오후 5시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전화·서신 문의하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탐골공원 뒷편
(02) 741-0495, 0496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참나를 찾아 섬으로 떠나는 참선(禪)여행
수련회 안내
- 제11차 송광암 거름선원 겨울 수련회 안내 -
바다! 누구나 꿈꾸는 마음의 고향입니다. 인생을 고해라고 하지만 잃었던 배를 타던 유유자적, 위풍당당하게 삼매의 바다에서 빈배같이 노닐 수 있습니다. 저기 파도소리가 들리십니까? 같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파도소리를 따라 골짜기 들어가십시오.
* 수련일정 및 모집요강 *
처수 \ 내용 대상 기간(3박 4일)~일 모집인원 회비
제1차 15세 ~ 60세 2001.12.13~12.16 50명
제2차 2001.12.22~12.25
제3차 2001.12.29~02.01
제4차 2002.01.10~01.13
제5차 2002.01.17~01.20
* 하계 수련회는 7월 18일 ~ 8월 11일에 있습니다.
1. 수련내용: 묵언, 오후불식, 부처님오신날, 관음기도(송광산종) 106참회, 발우공양, 황구 참선, 화두법, 행선(적대행선, 금강 해수욕장), 수심경 강의, 선체조
2. 접수요령: 별도 양식없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종교 희망처수, 참가소견을 적어서 우편이나 FAX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준비물: 가벼운 차림, 세면도구
4. 찾아오시는길
(1) 서울 -> 북동(직통) 강남 터미널 2층 오선 8시, 9시
(2) 서울 -> 경주(고속) -> 북동(항공) -> 금진행 -> 시내버스(논현역하차)
(3) 서울 -> 순천(기차) -> 북동(항공) -> 금진행 -> 시내버스(논현역하차)
(4) 부산, 대구, 전주, 마산 -> 순천 -> 북동(항공) -> 금진행 -> 시내버스(논현역하차)
5. 회비 납부 인원 (접수된 회비는 반납하지 않음)
우체국: 501023 - 06 - 006414 (일선) 농협: 617073 - 52 - 068116 (일선)
6. 접수처: (우) 548-930 전남 고흥군 금산면 여진리 산 74번지
TEL: 061 - 843 - 8488 / FAX: 061 - 842 - 7307 홈페이지: http://www.yescall.com/song/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암 암주 일선 합장